

주일가정예배

[해방기념주일]

2022년 8월 14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았도다 그 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126:1,2..6)

자비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설 만한 물가와 같은 교회로 인도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해방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포악과 억압의 긴 어둠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자유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9장 다같이

1.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2.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3.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4. 주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 아 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시편 23편 3절 인도자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설 교 『 영광의 영성 』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331장 다같이

1.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맘으로 섬기겠네
 2.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맘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3.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맘으로 섬기리다
온 맘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 (후렴)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꿈의 정원과 청년부에게 은혜로운 여름되게 하옵소서.
3. 교회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4. 헌금안내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영광의 영성

시편 23편 3절

헬라어 ‘에피스트레포(*epistrepho*)’는 ‘되돌아오다’, ‘데리러 오다’는 뜻이다. ‘내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는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길을 잃은 양은 덩불이나 바위 밑에 숨어 ‘메에’ 소리를 내는데, 목자는 맹수보다 양을 먼저 찾아야 한다. 이 때 양은 극도로 불안하여 제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양을 어깨에 메고 오기도 하며 가슴에 앉기도 한다. 필리프 드 샤파뉴(프랑스 1602-1674)가 그린 <착한 목자>라는 그림은 목자의 심정을 잘 그려냈다. ▶찬송가 277장 “양 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라는 찬양은 목자를 부르는 양의 고백의 형식을 띄고 있다. 양은 목자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우리에게 길은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소망을 주는 사람, 우리를 끝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양은 잘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다. 등이 땅에 닿아 네 발이 허공으로 들린 양은 자기 힘으로 일어 설 수 없다. 뒤집힌 양은 위에 가스가 차게 되는데, 혈액 공급이 끊기기도 하므로 뒤집힌 양은 빨리 바로 일으켜 세우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전문가이다. 시121:1과 121:3이 그런 주님을 노래한다. 영적인 필요는 마음과 영혼 모두에 필요하다. 영혼이 소생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생명력(생명, 마음, 기력)이 모두 살아난다. ▶건강한 양떼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을 계속 이동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때로는 평탄한 길, 형통의 길,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시다(요3:16).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형통일 때가 많다. 그래서 서로 어긋나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도 쓰신다. 질병, 고난, 시련, 실패가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건강, 가정, 학업, 결혼, 직장, 일, 사업, 신앙생활 등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한대로가 아니라 당신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 눅11: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길은 의로운 길이며 성결의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바른 길이다. 광야에서는 가이드가 길임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이 길이시다(요14:6). ▶하나님이 구원하심은 나의 가치나 선행에 원인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즉, 자신에게 속한 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위해 일하신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십계명의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웨스트민스트 소요리문답(1648년)의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의 답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입니다.”와 연결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기도하라. 시115: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복을 받은 자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백성, 영광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